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국회의의 진행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국은 주요당 사업문제토의를 위하여 6월 12일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회의를 소집하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회의를 사회하시였다. 회의에서는 당의 당면활동과 당건설에서 나서는 주요과업들이 토의되였다. 회의에서는 전당의 각급 조직들을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5차전원회의 정신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당결정관철에 불리시키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치밀하게 하며 올해 당 및 국가사업전반에서 당조직들의 역할을 결정적으로 개선

할데 대한 문제를 토의하고 해당한 혁명적과업들을 포치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국은 중요하게 당안에 강한 규률준수기풍을 세우고 일부 당일군들속에서 나타나는 세도와 판료주의를 비롯한 불건전하고 비혁명적인 행위들을 표적으로 더욱 강도높은 투쟁을 전개할데 대하여 토의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당중앙검사위원회와 지방의 각급 및 기층규률감독체계를 보다 강화하기 위한 조직기구적인 대책과 효율적인 사업체계를 수립하며 감독 및 규률심의, 책벌규범들을 더욱

세분화하기 위한 당면사업과 전망과업에 대하여 밝혀주시면서 검사위원회의 사업보좌기구인 규률조사부서들의 권능과 직능을 확대강화하고 당의 규률건설로선의 본질과 그 강화의 합법적요구대로 엄격한 감독사업체계를 규률심의질서, 엄정한 책벌제도를 실시함으로써 당중앙의 유일적령도실현과 당의 광범위한 정치활동을 강한 규률제도로 철저히 담보해야 한다고 언급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혁명정당의 본성과 사명과 임무 즉 본태가 철저히 계승되고 사회주의집권당의 전투적강화발전을

위해서는 전당의 당조직안에 높은 정치성과 투쟁기풍, 혁명적인 작풍과 공산주의적도덕풍행을 장려하고 배양시키는 사업을 선행시켜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를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당규약 및 당규률 준수기풍과 당의 로선과 방침집행정형, 건전한 작풍구현과 도덕생활정형에 대한 감독사업체계를 시정체계를 엄격히 세우는것이 필수불가결의 선결과업으로 나선다고 지적하시였다. 회의에서는 당규률건설을 당건설과 당활동의 선결적인 중대과업, 중요로선으로 내세우고 당의 기초를 더욱 튼튼히 다지

고 당정치활동에서 혁명성과 전투성을 제고하며 당의 역할과 품모를 세련시키고 개선강화할데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중요한 전략적당건설사상이 천명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국은 당규률건설에 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독창적인 사상리론을 당사업과 활동에 철저히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대책들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또한 회의에서는 당의 결연지도사업을 개선하고 당내부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기타 중요문제들도 토의되였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가정에서 마련하신 약품들을 조선로동당 황해남도 해주시위원회에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황해남도 해주시에서 금성장내성전염병이 발생한것과 관련하여 6월 15일 가정에서 마련하신 약품들을 조선로동당 황해남도 해주시위원회에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가정에서 마련하신 약품들을 본부당위원회에 전하시면서 지원약품들을 해주시 당위원회에 보내주며 시당위원회가 전염병으로 앓고 있는 대상세대들을 구체적으로 장악하고 약품들을 빨리 전해주어 치료사업에 조금이라도 보태게 해달라고 당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당중앙위원회 부서초급당 위원회들과 당세포들에서 해주시와 강령군일대에서

발생한 전염병치료에 필요한 약품들을 성의껏 마련하여 보내주기 위한 조직사업을 잘함으로써 당중앙위원회 일군들로서의 마땅한 본분을 다할데 대하여 지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금성장내성전염병의진자들에게 대한 격려대책을 빈틈없이 세우 전염병로를 철저히 차단하고 역학조사와 과학적인 검사방법으로 확실히 하며 발병지역에 대한 소독사업을 강도높이 진행하는 것과 함께 해당 지역의 보건기관들에서 극진한 정성으로 환자들에 대한 집중치료사업을 잘함으로써 전염병을 하루속히 근절시킬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보내주신 은정어린 약품들이 해주시의 주민세대들에 전달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금성장내성전염병이 발생한 황해남도의 인민들을 위해 가정에서 마련하여 보내주신 약품들이 16일 해주시의 주민세대들에 전달되였다. 인민의 생명안전을 제일중대사로 내세우고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인민들결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 고통을 함께 나누는 당중앙의 육친의 정이 어린 사랑의 불사약을 받아안은 해주시의 인민들은 고마움의 눈물로 두볼을 적시며 《김정은동지 만세!》, 《조선로동당 만세!》를 목청껏 외치였다. 그들은 인민의 아픔보다 더 큰 비참사태는 없으며 인민의 불행을 가져주는 것보다 더 참차대한 혁명사업은 없다는 숭고한 리념을 지니시고 인민에 대한 열사복무로 온 넋을 불태우시는 원수님의 자애로운 영상을 이 세상 제일 위대한 어머니의 모습으로 뜨겁게 새겨안았다. 룡당1동과 2동의 주민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보내주신 약품들을 받고보니 눈물만 앞선다고 하면서 우리 원수님과 같은 아버지는 이 세상에 없다고, 그 품을 떠나 우리는 한순간도 못산다고 마음속진정을 토로하였다. 시에동의 주민들은 원수님께서 전염병을 앓고있는 우리 해주시의 세대들

